

왜 국어만 계속 흔들릴까

기출도 여러 번 분석했다.

해설을 보면 왜 틀렸는지도 이해된다.

오답노트도 만들었다.

공부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어만 안정되지 않는다.

어떤 시험에서는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는 3~4등급까지 떨어진다.

특히 다른 과목은 안정적인데 국어만 유독 성적 변동폭이 큰 학생들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이 상황을 실력 부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성적도 일정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비슷하게 나오거나, 항상 낮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많은 N수생들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공부했는데도 시험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왜 틀렸는지 이해된다.

해설도 납득된다.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는 비슷한 실수가 또 나온다.

왜 그럴까?

KAOS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왜 학생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무너질까?

우리는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오답을 선택했는지에 주목했다.

분석해보니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비슷한 단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떤 학생은 모든 정보를 중요하게 처리하다 시간을 잃는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첫 판단을 끝까지 방어한다.
어떤 학생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근거 확인을 건너뛴다.

결과는 모두 오답이지만, 오답에 도달하는 과정은 서로 달랐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같은 국어 3등급이라도, 같은 국어 성적 변동을 겪고 있더라도,
무너지는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부족해요.”
“선지 두 개에서 항상 막혀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시간이 부족해졌는지,
왜 그 선지가 맞아 보였는지,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감기에 걸렸다고 모두 같은 약을 먹지 않듯,
국어 역시 단순히 문제를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충분히 공부했는데도 국어만 불안정하다면,
더 많은 문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반복되는 사고 패턴일 수 있다.

KAOS는 실제 기출문제와 학생 오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패턴을 분석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흔들리는 방식을 8개의 대표 에러 유형으로 정리했고,
평가원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오답 유도 방식을 5대 함정으로 구조화했다.

하지만 8대 에러를 안다고 해서 자신의 유형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은 여러 에러가 동시에 나타나고,
겉으로는 같은 실수처럼 보여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틀렸는가"가 아니라
"왜 그 오답이 맞아 보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KAOS 시험장 붕괴 패턴 진단은 학생의 오답 패턴과 사고 흐름을 분석하여,
시험장에서 반복적으로 발동되는 주요 사고 에러와 취약 지점을 진단한다.

국어 성적은 결과다.
하지만 결과만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같은 점수,
같은 실수,
같은 시간 부족 뒤에도
서로 다른 패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부량은 충분한데 국어만 불안정하다면,
교정은 문제를 더 푸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8대 에러 & 평가원의 5대 함정』은 KAOS가 분석한 대표적인 사고 패턴과
오답 유도 구조를 정리한 입문 자료입니다.

(상)편 구매 링크

<https://docs.orbi.kr/docs/14145>

(하)편 구매 링크

<https://docs.orbi.kr/docs/1414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me/kaoslab>